

민주 정책배심원 즉문즉답 시행... 송곳 질문 나올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심층토론편식 확정 현장 추첨 통해 질문 배심원·답변 후보자 정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을 위한 심층 토론회가 27일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대강당에서, 28일은 순천대 초석홀에서, 29일은 조순대 서석홀 대호전기홀에서 각각 열린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자들이 이들 3곳에서 사흘 동안 각각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120분씩 '정책배심원 심층토론편식'에 참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에 오른 후보자들은 기호 1번 김영록, 기호 2번 강기정, 기호 4번 주철현, 기호 5번 신정훈, 기호 6번 민형배 후보 5명이다.

이번 심층토론편식에서 마련된 '후보 정견 발표'와 개별 후보가 전체토론을 이끄는 '주도권토론' 프로그램은 예비경선 후보들이 참여했던 조별토론 때 방식과 같다.

다른 점은 우선 정책배심원단 가운데 추첨을 통해 5명의 배심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배심원의 공통질문에 후보자들이 각각 1분 내로 답을 하는 '정책배심원 질문'이 도입된다.

또 사회자가 추첨으로 답변할 후보자를 먼저 정한 뒤, 질문을 원하는 배심원이 손을 들면 사회자가 손을 든 배심원 가운데 재량으로 질문자를 선정해 질문과 답변을 하는 '정책배심원단 즉문즉답' 토론편식도 시행된다.

이때 배심원의 질문은 30초 내로,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은 1분 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즉문즉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앞서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각 후보자가 2분 내로 답변을 하는 '사회자 공통질문' 코너도 마련됐다.

토론 순서와 소요 시간은 △후보 정견 발표(후보당 2분) 총 10분 △정책배심원단 질문(후보당 1분 답변) 총 30분 △주도권 토론(후보자별 4분 주도권, 답변 30초 이상 보장) 총 20분 △사회자 공통질문(후보당 2분 답변) 총 10분 △정책배심원단 즉문즉답(후보당 1분 답변) 총 25분이다.

3개 권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이번 심층 토론편식의 사회는 임세은(당 선임부대변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에너지·석유화학제품 절감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단장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에너지·석유화학제품 절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 서정성(대한사회회 부회장) 선관위 위원이 맡았다.

매회 토론을 1부(후보 정견발표, 정책배심원단 질문)와 2부(주도권 토론, 사회자 공통질문, 정책배심원단 즉문즉답)로 나누고, 1부가 끝난 뒤 5분 정도 휴식시간을 마련했다.

주최 측은 이 시간에 토론회장 무대를 주도권 토론용 테이블로 비워 설치할 예정이다.

권역별 정책배심원은 모두 30명이고, 이들은 추첨이나 거수를 통해 사회자 지목으로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따라서 30명 정책배심원 모두 사전에 후

보들에게 할 질문을 1개 이상 준비하지만, 토론을 마칠 때까지 질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중앙당선관위는 24일 오후 6시 중앙당사에서 각 후보자 대리인을 초청해 '정책배심원 심층토론편식 설명회'를 열어 토론편식 주요 내용과 진행방식을 안내하고 기호를

추첨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에 오른 후보자들은 토론편식의 각 테이블 앞면을 가리는 하단 현수막을 20자 이내로 준비해 설명회 전에 당 직능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영록 “뷰티산업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

의료·헬스케어·뷰티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공약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사진)가 뷰티산업을 지역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산업 공약 경쟁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23일 의료·헬스케어와 뷰티산업을 결합한 '뷰티·메디케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전남광주를 K-뷰티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그는 전남의 천연물·원료·바이오 자원과 광주의 디자인·AI·마케팅 역량을 연

계해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의료·헬스케어 산업 기반 위에 뷰티 분야를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 방안도 함께 내놴다. 김 예비후보는 가장 '아시아뷰티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뷰티 관련 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개선, 비즈니스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제정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역 기반 산업인 소상공인 지원도 강조했다. 광주 6600여 곳, 전남 7300여 곳에 이르는 미용실·네일·피부관리실·메이크업 숍 등을 중심으로 경영력 강화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광주·전남 17개 대학의 뷰티 관련 학과 재학생과 졸업생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산·학 협의회를 구성해 교육과 취업, 창업까지 이어지는 지원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형배 “전남광주 교통 요금체제 단일화 필요”

‘통합 환승요금제’ 등 4대 정책 발표... “교통 불공정 개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사진)이 전남광주 요금체제를 하나로 묶어 통합 환승요금제를 도입하는 '교통 서비스 4대 혁신'정책을 22일 발표했다.

민 의원은 이날 통합 환승요금제 도입과 함께 일정에 통합 교통패스 '남도패스' 도입, 농어촌 공공교통 확대, 단계적 무상교통 추진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대중교통으로 50km를 이동할 경우 서울·경기 간 교통요금은

3000원대인 반면, 광주에서 장흥까지는 1만3000원 수준에 달해 4배 가까운 교통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광주를 하나의 요금체제로 통합하고, 버스·철도의 환승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환승요금제'를 도입해 생활권 내 이동 시 추가요금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통근·통학·통원 치료 등 필수 이동에 대해서는 체감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해, 이동 거리가 늘더라도



금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요금은 시·군마다 나뉘고 환승은 불편한 분절된 구조”라며 “단일 생활권에 맞는 통합 환승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비싼 교통은 사람을 밀어내고, 불편한 교통은 지역을 소멸시킨다”며 “이동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이동이 편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윤병태, ‘대통합 선대위’ 출범... 세 결집

에너지·농축산 등 전 분야 아우르는 외연 확장 시동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사진)가 '대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섰다. 전직 시장과 도 고위 인사, 지역 원로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선거 초반부터 조직력과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예비후보는 23일 나주시 빛가람동 현전KDN 사거리 인근 선거사무실에서

'대통합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선대위원장과 선대본부장, 고문단을 비롯해 언론인과 지지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이번 선대위는 농축산업, 에너지산업, 교육, 문화예술, 체육, 복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전·현직 정치인, 시민사회 인사 등 67명으로 구성됐다. 윤 예비후



보 측은 향후 위원 구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외연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공동 선대위원장은 임성훈 민선 5대 나주시장, 정순남 전 전남도 부지사, 이순욱 전 금성라이온스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고문단에는 김대동 민선 2대 나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원로들이 참여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구조를 갖췄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6·3 지방선거 브리핑

김성 장흥군수 재선 도전

“노벨문학도시 장흥 완성할 것”

김성 더불어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사진)가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민선 8기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핵심 과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놴다.

김 후보는 23일 선거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동안 완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여러 제약으로 이루지 못하고 미완으로 남겨진 '어머니 품 장흥', '노벨 문학 도시 장흥'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흥의 최우선 과제로 인구 감소 문제를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핵심”이라며 “전남·광주 통합 흐름에 맞춰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 예비후보는 장기 목표로 △인구 4만명 회복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기금 300억원 조성) △청년 일자리 500개 창출 △관광객 500만명 유치 △예산 1조원 달성 등을 제시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우승희 영암군수 예비후보 등록

“인구 10만, 예산 1조 시대 완성”

우승희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수 예비후보(사진)가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인구 10만 서남권 중심도시, 예산 1조 영암시대’ 비전을 제시했다.

우 예비후보는 23일 영암을 선거사무실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군민 소득을 높이고, 인구 10만 기반을 구축해 영암의 체질을 바꾸겠다”며 “민선 8기에서 시작한 변화를 중단 없이 이어가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영암의 상황을 ‘중대한 갈림길’로 규정했다. 우 예비후보는 “영암이 앞으로 나아갈지, 과거로 돌아갈지를 결정하는 시점”이라며 “그동안 혁신을 통해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민선 9기 핵심 전략으로 ‘영암 대도약 7대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인구 10만 전남광주 서남권 중심도시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농축산 대전환 △지역순환경제 구축 △평생복지 강화 △청년 기회 확대 △국립공원 기반 관광도시 조성 등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주차난부터 생활민원까지...”

임택, 생활밀착형 공약 제시

광주 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임택 예비후보(사진)가 주차난 해소와 보행환경 개선, 생활민원 처리체계 개편을 축으로 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놴다. 거창한 개발보다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행정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임 예비후보는 23일 ‘일상 속 주민행복’ 공약을 발표하고 주차 문제와 생활안전, 민원 대응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임 예비후보는 “도시의 경쟁력은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주민이 매일 체감하는 생활의 편리함에서 시작된다”며 “주차 문제, 보행환경, 생활안전 등 일상 속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여 주민이 체감하는 행복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에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주차 활성화 △주거·골목 중심 생활밀착형 주차공간 확보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확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골목환경 조성 △생활민원 신속 처리 시스템 강화 등이 담겼다.

임 예비후보는 “지난 8년간 동구가 변화와 회복의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차승세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일상 채울 10대 행복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차승세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사진)가 23일 광산구민의 일상을 촘촘하게 채울 ‘10대 행복(생활) 공약’을 발표했다.

차 후보가 발표한 10대 행복(생활) 공약은 산모 일상회복 패키지 지원, 반려동물 공공위탁센터 설치, 공공 파크골프장 2곳 조성, 경로당 어르신 식사지원 확대, 신생아 백신패키지 50만원 지원, 농촌 차별·역차별 정책 철폐, 청년 맞춤형 영테크 금융 교육 지원, 광산구민 AI 에이전트 무료 사용, 전·월세 사기 방지 안심계약 서비스, 전 광산구민 기후보험 가입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출산 후 여성의 건강을 위해 산모 체형 회복(필라테스, 요가) 및 피부·탈모 관리 지원을 신설하여 출산의 짐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눈다. 또한 증명하는 반려인들을 위해 공공 반려동물 단기 위탁센터를 설치한다.

차승세 예비후보는 “광산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행정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는 ‘1:1 맞춤 행정’과 어려운 곳을 정확히 찾아 해결하는 ‘디테일(Detail) 행정’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